

미래...세계...역동...



차엑스포 10년 노하우 결집



보성군이 내년 10주년을 맞는 '보성 세계차엑스포'를 대자연에서 치유 콘텐츠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사진은 보성 대한다원 제2다원 전경. <광주일보 자료사진>

# 보성차엑스포 대자연속 힐링 축제로

군, 내년 행사 기존 방식 탈피...차밭·바다·산 속 치유 콘텐츠로 차별화  
올 엑스포 9월 29일부터 다향·소리축제와 통합...내달부터 특산물 판매

내년 4월 열리는 '2022 보성 세계차엑스포'의 밑그림이 나왔다. 보성군은 '차엑스포 10년'의 노하우를 결집, 차별화한 콘텐츠를 선보이고 보성녹차의 산업화와 미래화 비전을 제시한다는 구상이다. 15일 보성군에 따르면 군은 최근 소회의실에서 내년 개최하는 '제10회 보성 세계차엑스포 중간보고회'를 열었다. 보고회에는 김철우 보성군수와 차재배·차문화 단체 대표 등 20여 명이 참석해 '2022년 보성세계차엑스포의 비전'을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는 엑스포 개최 10년 노하우를 담은 차별화된 콘텐츠와 프로그램 개발 등이 논의됐다.

주제관 구성, 행사장 조성, 국내 차 산업의 세계화·미래화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도 나왔다. '2022 보성세계차엑스포'는 10돌을 기념하는 의미있는 행사로 기존 엑스포 형식을 탈피해 국내외 차 전문가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누구나 차를 통해 힐링하고 치유할 수 있는 콘텐츠로 꾸민다는 방침이다. 또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차밭과 바다, 산을 연계해 드넓은 자연 속에서 차와 만나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김 군수는 "보성차 산업이 미래산업으로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역동적이고 매력 있는

축제형 엑스포를 만들 계획"이라며 "엑스포를 통해 대한민국 차 산업이 세계시장을 주도하는 대전환점이 되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보성세계차엑스포는 2013년 '세계명차품평대회'로 시작해 2014년부터 서울·광주에서 국내외 차 관련 단체와 업체가 참여하는 '세계차박람회'로 성장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온택트 '보성세계차엑스포'를 개최했다. 이 엑스포에는 나흘간 6만4000여명이 온라인으로 동참하며 1억20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9회째를 맞는 올해는 다음달부터 오는 9월까지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 엑스포를 사전 홍보하고 차·농특산물을 판매한다. 본 행사는 9월 29일부터 10월 3일까지 다향대축제·소리축제·군민의 날과 함께 통합축제로 열린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 광양항에 전국 항만 첫 건강관리실 개소

여수광양항만공사, 심혈관계 질환·심리 상담 등 맞춤 서비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전국 항만 최초로 항만 근로자를 위한 '광양항 건강관리실'을 개소하고 시범운영에 들어갔다고 15일 밝혔다. 항만공사는 지난해 12월 광양항 선원복지회관 2층에 광양항 건강관리실을 구축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운영을 미뤘다 최근 개소하게 됐다. 건강관리실은 심혈관계질환 예방을 위한 기초건강 점검, 근로자 심리치료, 근골격계 질환 상담 및 물리치료의 시스템 등을 갖췄다. 젊은 의료진이 참여해 관리와 치료 등을 병행하고 있다. 전문병원의 물리치료실 못지 않은 건강관리실의 치료기기와 근골격계 프로그램은 무거운 하

중을 견디는 항만 근로자에게 적합한 보건 서비스로 호평받고 있다. 건강관리실은 열악한 항만 의료 인프라를 개선하고자 전남동부근로자건강센터, 부두운영사, 항온노조 등과 뜻을 모아 개설했다. 항만공사는 다음달 7일까지 시범 운영하면서 항만 근로자의 의견을 수렴한 뒤 VR 안전보건 콘텐츠 도입, 운동치료실 조성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출 계획이다. 한 근로자는 "하역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스트레칭과 물리치료는 꼭 필요한 서비스인데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많은 근로자들이 이용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



'광양항 건강관리실'에서 차민식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 등 참석자들이 전문의 상담 후 물리치료 체험을 하고 있다.

# 광양시, 첫 수소충전소 설치

환경부 공모사업 선정...국비 등 30억 들여 내년 3월 준공

광양시는 올해 환경부 주관 수소충전소 설치 공모사업에 선정돼 내년 3월 중 첫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충전소는 광양읍 성황동 소재 기존 LPG 충전소 대지를 임대해 설치하며, LPG 복합형 수소충전소로 운영될 예정이다. 총 사업비는 30억원으로, 수소충전소 설치 공모사업 선정으로 국비 15억원을 확보했으며 민간 사업시행자가 15억원을 추가 투자한다. 시간당 승용차 6대를 충전할 수 있는 규모로 수소충전소 전문 설치업체인 '하이넷'이 설치하고 위탁 운영한다. 하이넷은 수소충전소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 법인으로 전국에 41개의 수소충전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올해부터 수소자동차 보급 부족에 따른 영업손실 해소를 위해 민간 운영업체 운영비가 국비로

보조되어 수소충전소와 수소자동차 보급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지난해 말 전국의 수소차 보급대수는 1만 대를 돌파했으며, 정부는 올해 수소차 5000대 보급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광양시는 내년 상반기 지역 내 수소충전소 설치에 구체화됨에 따라 2025년까지 수소차 400대 보급을 목표로 연도별 보급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개인이 수소차 구입 시 1대당 3450만~375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 친환경 수소차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광양시 관계자는 "일명 '달리는 공기청정기'인 수소차 사용으로 도심 미세먼지가 줄고 대기환경도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수소충전소 설치로 수소차 보급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 곡성관광택시 온라인으로 예약하세요

시스템 구축...6월까지 이용권 할인·럭키박스 증정 등

곡성군은 최근의 여행 트렌드에 맞춰 곡성관광택시의 '온라인 예약 플랫폼(KKday)'을 구축했다고 15일 밝혔다. 곡성관광택시는 의도치 않은 곳에서 즐거움을 찾는 여행의 추세에 맞춰 만들어진 상품으로 지역의 잘 알려지지 않은 곳을 여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기존에는 전화 예약으로 운영했지만 최근 자유여행 액티비티 예약 플랫폼인 'KKday'와 협약을 맺고 온라인 상품을 출시했다. 협약에 따라 곡성군은 오는 6월까지 곡성관광택시 3시간 이용권 할인, 심청상품권 1만원, 다양한 기념품이 들어있는 럭키박스를 증정한다.



또 곡성관광택시 이용객은 각종 체험상품과 숙박 시설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혜택도 주어진다. 곡성관광택시 관계자는 "택시 안에 비말 차단막을 설치하고 수시로 실내를 소독하는 등 철저한 방역수칙을 지키며 승님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곡성=박종태 기자 pit@kwangju.co.kr

# 순천시 원로 시정자문단 출범...시민 소통 확대

순천시는 민선 7기 후반기 시민 소통을 확대하기 위한 '원로 시정자문단'을 구성, 출범했다고 15일 밝혔다. 순천시는 최근 대회의실에서 '순천시 원로 시정자문단' 1차 회의를 열어 시정 전반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올해 신설된 순천시 원로 시정자문단은 읍·면·동 추천을 받아 각계각층의 원로 33명으로 구성됐다. 첫 회의에서는 위촉장 전수와 위원장 선출, 시정 주요현안 사업 보고, 의견 수렴, 건의 사항 순

으로 진행됐다. 원로 시정자문단 위원장에는 대한노인회 부회장을 역임한 강갑구 씨가 선출됐다. 회의에서는 경전선 전철화 사업 추진 현황과 백신 접종 계획, 2023정원박람회 준비 계획 등을 공유하고 원로들의 의견을 들었다. 허석 순천시장은 "원로들의 질책을 겸허히 수용해 새로운 순천을 만들겠다"며 "시민의 목소리가 반영된 시민 체감 시책을 집중적으로 발굴해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 한반도를 지켜낸 열일곱 소년의 힘찬 '깃발'

"만약 선조임금이 의주에서 압록강을 건넜다면 조선이란 나라는 사라지고 없을 것이다."

### 이계홍 역사소설 깃발 ①~⑤

바다에는 **李충무공**, 육지에는 **鄭충무공**이 있었다!

총무공 금남군 정충신 — 그는 임진왜란에서부터 병자호란 직전까지 오직 군인 외길을 걸어온 인물로 그 일생은 드라마적 파노라마 그 자체이다. 이괄의 난을 평정한 공훈으로 '금남군(錦南君)'에 봉군됐으며, 광주광역시 금남로는 정충신의 업적을 기려 시호인 금남군에서 유래되었다. 60년 생애 덕장으로 명성을 떨친 충무공 정충신 후손의 일대기!

◆ 신국판 / 310~348쪽 / 각권 값 13,000원

외항선 선장 출신, 고려대 로스쿨 교수의 바다이야기

2020년 신간!

**선장 교수의 고향 사랑**

(바다와 나의 연결시킬 수 있는 바다관련 생활 예제 13편 등 모두 48편을 실었다.)  
김인현 지음 | 신국판 | 340쪽 | 값 15,000원

문화관광부 우수교양도서 선정·제5쇄 발매중

제5쇄 판매중

**한 출판인의 자화상**

지난 반세기 동안 출판의 외길을 걸어온 저자의 자화상이며, 제목 그대로 저자가 살아온 삶 자체이다.  
윤형두 지음 | 신국판 | 528쪽 | 값 15,000원

제국주의 일본은 한반도에서 무슨 악행을 저질렀는가!

인기리 판매중

**알수록 이상한 나라 일본**

왜 일본 정권은 침략주의 과거사를 미화美化하는가에 역사 객관성을 추구하는 학자들을 국적으로 모는가!  
"역사를 모르는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정일성 지음 | 신국판 | 332쪽 | 값 15,000원

정유재란 7주년을 맞아 떠낸 한중일민의 공동연구서

최신간 양장

**정유재란사 - 한중일 공동연구**

7년전쟁의 종전 7주년이 되는 2018년 11월의 노랑해전에 맞춰 펴낸 책. 정유재란을 '잊혀진 전쟁'으로 방기해서는 안 된다.  
조원래 외 지음 | 4x6배판 양장 | 688쪽 | 값 70,000원